

광주, 이동약자 길 넓힌다...BF 플랫폼·장애친화 지도 활성화

〈배리어 프리:모두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건물진입경사로·생활권 편의시설 등 정보 지도 표시...앱·QR코드 확인

광주시 자치구들이 이동 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각 자치구는 광주시 곳곳의 건물 진입 경사로, 장애인 편의 시설, 휠체어 관련 시설 등 이동 약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 정보를 지도에 표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잇따라 펼치고 있다.

25일 광주시 남구는 올해부터 '무장애 BF(배리어 프리) 플랫폼'의 기능을 확장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 지도에 각종 BF 정보를 등록·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BF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물리·심리·제도적 장벽을 허물기 위한 환경 조성 운동 내지는 설계를 가리킨다.

남구는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 제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민간업체와 함께 해당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후 민간 기술 지원이 종료되면서 발생했던 오류를 개선하고 지난해 12월 시스템 보안 강화 및 업데이트 작업을 마무리했다.

남구는 행정기관과 주민이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

터를 지도에 반영하는 '커뮤니티 매핑' 방식으로 장애인과 주민이 생활권 내 편의시설과 이동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운영체제 전환과 함께 기존 등록 데이터 정비를 진행하고 신규 정보 추가를 통해 더욱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남구의 설명이다.

플랫폼에서는 음식점과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정보를 카테고리별로 제공하고 검색 기능도 지원한다.

또 진입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구역, 엘리베이터, 점형 블록, 전동 휠체어 충전기 등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길 찾기 기능과 내비게이션 연동, 전화 연결 기능도 포함돼 있다.

남구는 오는 3월까지 구청 SNS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단체 등을 통해 홍보물을 배포하고, 관내 장애인시설·단체 38곳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플랫폼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동구도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친화적인 가게들을 소개하는 특별한 지도 배포를 통해 장애 친화 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

동구가 지난해 12월 제작한 '동구 장애친화가게

지도'는 동구 평생학습관에서 활동 중인 장애인들과 조선훈 장애인복지센터와 협업해 만들어졌으며 일반형, 점자형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이는 지난해 지역 내 식당·카페 2119곳을 전수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도시 환경을 직접 분석, 기록하는 현장 실증 점검, 장애인 참여형 접근성 기준 재정의, 점자·QR 기반 음성 안내 콘텐츠 개발 등 과정을 거쳐 제작됐다.

지도에 표시된 가게별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면 음성 안내를 듣고 네이버 지도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북구는 누구나 편하고 안전한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용봉지구 일원에 이동편의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북구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과 보도블록 진입로를 정비하고, 주차차 구역 내 장애인 주차차 구역을 확보한다. 또 수요조사를 통해 민간시설로부터 신청을 받아 경사로, 점자간판, 점자메뉴판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북구는 오는 3월 중 특화거리 조영과 보도블럭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광주시 남구 직원들이 최근 청사 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장애 남구 BF 앱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 제공)



'광주 나눔소리 오케스트라' 선율

광주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소속 '광주 나눔소리 오케스트라'가 지난 24일 광주시 서구청 1층 로비에서 청소년들의 재능기부로 작은음악회를 열고 있다.

(광주시 서구 제공)

광주 대표 지역 축제 빛나다

충장·서창역사·광산뮤직은 축제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광주시 자치구들이 개최한 지역 축제들이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잇따라 입상했다.

광주시 동구는 지난 24일 서울 용산기념관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충장축제가 '글로벌 명품 부문' 대상을 받아 10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은 시민과 관광객의 호응을 얻은 우수 축제를 선정해 자긍심을 높이고, 축제의 지속적인 발

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시상 프로그램이다.

동구는 지난해 10월 '제22회 충장축제'에서 일차별 테마 행사 운영과 대표 콘텐츠인 '충장 퍼레이드' 확대, 시민 기획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다채로운 볼거리와 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관광객의 호응을 얻었다.

서구의 대표 축제인 서창역사축제도 이번 시상에서 '축제관광생태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대상 수상의 기록을 이어갔다.

서구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10회 축제에서 환경과 생태를 체험하는 '사운드스케이프'와 '뽕따리기 대회'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해 도심 속 평화 힐링이라는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평가다. 특히 해가 저무는 오후 5시 30분에 맞춰 은빛 역사와 붉은 노을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한 '노을530' 무대는 방문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광산구의 '광산뮤직온페스티벌'은 프로그램 특별상을 수상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열린 제3회 축제에서 친환경 체험 공간과 자원순환 가게, 자원순환 홍보 공간 등 친환경 운영 방식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구성과 지역 사회와의 연계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10만원 결제하면 5만원 환급 '동구랑페이' 추첨 이벤트

광주시 동구가 지역사랑상품권 '동구랑페이'로 10만원 이상 결제한 주민에게 5만원을 돌려주는 추첨 이벤트를 마련했다.

동구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광주 동구랑페이' 5만원 페이백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은 행사 기간 내 동구랑페이카드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결제하고, 관련 영수증과 동구랑페이 실물 카드를 지참해 동구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동구는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동구랑

페이 선불카드 5만원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다음달 9일 개별 문자로 통보되며, 경품은 동구 일자리경제과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응모와 경품 수령은 1인 1회 본인에 한해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동구랑페이 선불카드는 지난 23일 발행을 시작했으며, 광주 소재 광주은행 영업점에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골목상권 활성화...북구 '부끄머니' 80억 규모 발행

광주시 북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북구 지역화폐 '부끄머니'를 다음 달 3일부터 8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부끄머니는 총 80억 원 규모로 발행되며, 온누리상품권과 광주상생카드(할인율 10%)보다 5%포인트 높은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만 14세 이상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금액별(3·5·10·20·50만 원) 선불카드 형태로 발급된다.

기존 북구 지역 광주은행 18개 지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던 부끄머니는 광주 전역 67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북구는 다음 달 3일부터 이틀 간 북구청 광장에서 '부끄머니 출장버스'도 운영, 현장 발급을 지원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부끄머니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발행된 부끄머니 사용액은 76억 원을 넘었으며, 음식점·마트·학원 등 생활 밀착업종에서 80% 이상이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www.getbolworldheritage.org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산명: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2021년
- 유산면적

명칭	한계 (㎡)	유산지역 (㎡)	완충구역 (㎡)
총면적(㎡)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창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천시(605.24㎢)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1,497.24㎢)의 약86%, 국가연안습지(2,482.00㎢)의 약52%를 차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인정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수평선만 보이는 북대서양 연안의 외딴해 갯벌 산과 섬에 둘러싸인 절경을 보이는 한국의 갯벌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 갯벌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 모양의 조수로
- 자연이 선명한 아름다운 조수로
- 갯벌 위의 수채화
- 새들의 휴식처인 사위와 일반서식지
- 갯벌 위에 춤추는 무희, 사위
- 암반서식지 위에서 휴식하는 홍도요
-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퇴적체
- 모래-자갈 선형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움
- 갯벌별로 다른 행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한국의 갯벌 VR프로그램

한국 갯벌의 생태를 VR로 만나보세요! 철새이동, 먹이활동, 서식굴, 쾨뿔어 싸움, 염낭게, 염생식물, 오염된 갯벌 구출까지 7가지 콘텐츠로 갯벌의 생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철새이동
- 철새의 먹이활동
- 서식굴
- 쾨뿔어 먹이싸움
- 갯벌의 청소부 염낭게
- 염생식물의 역할
- 오염된 갯벌에서 갯벌생물을 구하자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태 탐험 수업 현장!

- VR로 떠나는 생생한 갯벌 탐험
- 직접 만지고 만드는 생태 교육 체험
- 내 손으로 만드는 미니 갯벌 생태계
- 갯벌 생태계를 직접 구경해보는 활동